#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와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김 규 훈 (대구대학교) (rbgns81@naver.com)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국어 의식의 개념이 언어 인식과 관련하여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중층성을 상기하고 '의식'의 개념적 근원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어 의식을 탐구적 태도, 인식적 태도, 가치적 태도로 범주화하고 각 개념 요소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 체계에서는 국어 의식이 핵심 아이디어에서 명시되었으나, 언어 인식 중심으로만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었다. 성취기준에서는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에 관한 국어 의식 교육내용이 지식·이해 범주와 주로 연계되어 선언적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국어 의식의 가치적 태도 교육이 국어 활동의 언어문화 관련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주제어: 국어 의식, 언어 인식, 국어에 대한 태도, 2022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 국어 활동의 언어문화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어 의식은 문법교육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국어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이 주로 국어 지식, 즉 국어 단위에 따른 지식으로서의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 화용론 등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지만, 엄연히 '국어의식'이라는 '정의적(affective) 교육 내용'을 지니고 있다. 1) 고춘화(2013, 173)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및 얼의형성에 이르는 가치적 층위를 내포하고 있는 문법 영역의 중요한 정의적 교육 내용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은 아직 정련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국어 의식에 대한 체계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인식(2011, 2015 교육과정), 국어의 가치를 탐구하는 일(2022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등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가 명료하게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국어 의식에 관련된 그간의 논의라고 할 수 있는 김은성(2005), 신명선(2008), 원진숙(2013), 고춘화(2013), 김은성(2018), 김진희(2018), 김규훈(2019) 등에서 연구되어 온 바를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sup>1)</sup>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을 문법 영역의 정의적 지식에 대한 대표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실제(텍스트)' 중심 교육을 표방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의 '백락' 범주에 대한 내용 요소로 등장했던 '국어 의식'은 '국어 생활 문화'와 함께 문법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국어 의식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국어에 대한 정신적 태도'로서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의 근간으로 작동한다. 곧 국어 의식은 문법의 맥락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지식과 탐구 영역과 서로 교호하는 것이다(신명선 2008, 374).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국어 의식은 그 개념이 축소되기도 하고(교육과학기술 부 2012, 교육부 2015), 다시 확대되기도 하였는데(교육부 2022), 이는 국어 의식의 개념에 대한 숙의가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을 문법 영역에서 다루는 국어에 대한 태도의 대표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국어 의식과 관련된 개념들을 섭렵하여 논의를 진행함을 밝혀둔다.

<sup>2)</sup> 이들은 '국어 의식,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에 관한 같은 울타리 내의 논의들이다. 김은성(2005), 김은성(2018), 김진희(2018) 등은 국어 의식을 언어 인식과 관련지어 논의해 왔는데, 언어를 대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는 활동의 차원에서 개념화되어 있다. 원진숙(2013)은 NCLE(1985) 및 ALA(1996)을 바탕으로 언어 의식의 개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한 의식과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고 한 바 있다. 고춘화(2013)의 경우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문법교육에서 국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교육을 대표하는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체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인하고, 국어 의식에 대한 교육과정적 논의를 종합하여, 국어 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일련의 개념적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국어 의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다 범주적으로, 세부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규훈(2019)에서는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을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을 기반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언어 인식과 그 하위 영역인 비판적 언어 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국어 자료에 쓰인 어휘, 문법, 표현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탐구하려 하고 특히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는 태도를 기르는 차원으로 논의한 것이다. 3) 김규훈(2019)가 언어 인식의 관점에서 국어 의식에 대한 내용을 구안하려는 시도는 일견 의미가 있지만, 국어 의식이 결코 언어 인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어 의식에는 국어 자료에 대한 태도적 측면도 있지만, '국어를 민족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언어 의식 그 자체로 바라보는 관점', '국어의 얼을 중시하고 전승 및 계승하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체계화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이 그 개념역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주목하여 이 연구는 이번에 개정 고시된 2022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4) 여기서 비판적 고찰은 이번 연구에서 마련할 국어 의식의 개념을 토대로 부족한 내용 요소를 점검하고 타당한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이, 국어 의식 관련 연구에서 지적받아왔던 교육 내용의 당위적 제시라는 비판점에 대해, 어떻게 극복하고 또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

국어 사용의 반성,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및 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sup>3)</sup>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인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언어 교육에 대한 관점이다(Fairclough et al. 2014). 특히 비판적 언어인식은 사회 속의 언어가 어떠한 힘의 논리로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why)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Clark & Ivanic 1999, 66).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 상태이자 교육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상정하고, 그 방법론으로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sup>4) 2022</sup>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공통 교육과정 '국어'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을 대상으로 삼아,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제시된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을 살필 것이다.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국어 의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념적 체계화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라는 교육적 명제를 논구한다.

# Ⅱ.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

국어 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국어 의식은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과 연관하여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들 논의들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II 장에서는 국어 의식의 개념에 대한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고, 각 범주별 개념 요소를 마련해보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 1. 국어 의식 관련 개념의 분석적 이해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국어교육 논의로는 김은성(2005), 신명선(2008), 원진숙(2013), 고춘화(2013), 김진희(2018), 김규훈(2019)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국어 의식,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이 정의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표 1〉국어 의식 관련 개념의 정의와 개념 요소의 추출

논의	국어 의식 및 언어 인식 정의	국어 의식 개념 요소 추출
김은성 (2005, 440)	언어 인식을 언어를 인식하는 행위, 더 나아가 언어 를 대상화하여 탐구하고 조사하는 행위이다.	- 언어를 인식하는 행위 - 언어를 대상화 - 언어에 대한 탐구, 조사
신명선 (2008, 371)	국어 의식이 맥락의 구성 요소로서 지식 및 탐구 영역과 서로 교호함을 고려하면 지식 탐구의 결과 와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 나 태도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식 탐구의 결과와 그 과정에 서 발현

논의	국어 의식 및 언어 인식 정의	국어 의식 개념 요소 추출
원진숙 (2013, 116)	언어 의식은 언어의 본질과 언어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민감성 및 의식적인 인식(NCLE, 1985) 내지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언어 학 습, 언어 교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민감성(ALA, 1996)이다.	- 삶에서 언어의 본질과 언어의 역할에 대한 민감성, 의식적 인식 - 언어 학습, 언어 교수, 언어 사 용에 대한 의식적 지각, 민감 성
고춘화 (2013, 172 -173)	국어 의식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언어 자체, 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개인의 국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언어 메타 의식과 논리적 사고,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얼의 형성 층위를 내포한다.	- 언어, 국어의 호기심과 탐구심 - 국어 사용에 대한 반성 - 언어 메타 의식 - 국어 가치관과 얼 형성
김진희 (2018, 40-41)	국어 의식은 언어 의식 내지 언어 인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대상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 를 인식하는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 는 개념이다.	- 언어에 대한 인식 - 언어 인식 주체에 대한 인식
김규훈 (2019, 13-14)	국어 의식 교육은 언어 인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언어 인식(CLA)을 바탕으로 '국어 - 사회 - 힘'의 관계를 탐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언어 인식 - 비판적 언어 인식(CLA) - '국어-사회-힘'의 관계 탐구

위 〈표 1〉은 국어 의식과 관련된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개념 요소를 추출해 본 것이다. 위 〈표 1〉에 제시된 다양한 논의는 국어 의식의 유관 개념인 '언어 인식, 언어 의식, 국어 의식'의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국어 의식을 '언어 인식'의 차원에서 정의한 논의들로 김은성(2005), 김진희(2018), 김규훈(2019) 등이 있다. 이들 논의들은 위 〈표 1〉에서 추출한 개념 요소들로 볼 때, 무엇보다 '언어를 대상화'하여 '언어 사용 주체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쉽게 말해서,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에 대해 탐구할 때, 자신이 사용하거나 탐구하는 언어를 인식한다는 말이다. 이에 언어 인식은 언어에 대한 탐구나조사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김은성, 2005). 한편 학습자의 언어 사용은 언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 인식의 차원까지 포섭하는데, 김진희(2018)에서 언급된 '언어 인식 주체에 대한 인식'이 이와 관련된다. 김규훈(2019)의 경우 언어 인식 가운데 특히 비판적 언어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도 비판적 언어 인식의 차원에서 '사회적 힘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언어 의식'의 개념을 내세워 국어 의식을 논의한 연구는 원진숙(2013)에서 확인할수 있다.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의식에 대하여 NCLE(1985) 및 ALA(1996)를 바탕으로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의식적 자각,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언어 교수, 언어학습,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 및 의식적 자각으로 파악하고 있다. 5) 여기서 '민감성 (sensitivity)'은 언어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 자각' 즉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깨닫는다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어 의식은 언어그 자체만을 의식의 대상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의 언어 교수와 학습, 사회적 측면의 언어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신명선(2008), 고춘화(2013) 등은 '국어 의식'을 명시하며 그 위상이나 개념을 파악하려 한 논의이다. 신명선(2008)의 경우 위 〈표 1〉에서 추출한 개념 요소를 볼 때, '맥락, 지식, 탐구'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당대 개정되었던 2007 교육과정에 관한 개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곧 2007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의식이 '맥락'이라는 내용 체계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국어 지식'이나 '국어 탐구'와 교호하도록 제시되었으므로, 국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발현하는 것이 국어 의식이라고 보았다. 어쩌면 국어 의식 자체의 개념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어 의식이 학습자가 문법교육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통칭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고춘화(2013)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의식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언어, 국어의 호기심과 탐구심', '국어 사용에 대한 반성', '언어 메타 의식과 논리적 사고', '국어에 대한 태도, 가치관과 얼의 형성' 등과 같이 추출된 국어 의식의 개념 요소는 각각 '언어 의식', '사고', '실천', '가치' 등으로 범주화되어 있다(고춘화 2013, 176), 이때

<sup>5)</sup> NCLE(1985)와 ALA(1996)는 언어 인식과 관련된 연구 단체를 가리킨다. 참고로 언어 인식 (language awareness)은 영국의 언어 사용 운동으로 촉발되었는데,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성찰, 사회 속 언어에 대한 민감성 등 언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교육 운동 및 교육 체제,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포괄한다.

고춘화(2013, 176)에서는 국어 의식은 언어 의식과 사고의 범주에 국한되며, 국어 의식을 바탕으로 바른 국어 생활을 하고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실천' 차원과, 국어 사랑 및 얼을 형성하는 '가치'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춘화(2013)은 국어 의식을 언어 의식과 사고를 중심으로 실천과 가치의 차원까지도 연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국어 의식의 개념 범주와 요소 설정

이상의 논의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 의식은 논자마다 그 초점이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되어 오고 있지만, 대체로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의 차원과 관련지어 오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들 논의가 각기 일견 가치가 있고 특히 언어 인식과 관련짓고자 하는 국어 의식의 개념은 그 구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어 의식을 국어 사랑과 구분하고(김진희, 2018: 38), 언어 의식과 사고를 강조하는(고춘화 2013, 176) 연구 등도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을 정교화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어 의식의 개념이 국어를 사랑하는 일과 구분되거나 국어를 인식하는 실천 행위와 구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국어를 사랑하는 일, 국어를 규범에 맞게 사용하는 일이 국어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 학습자가 국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국어의 얼을 지키는 글을 쓰는 행위가 국어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 이처럼 국어 의식이 학습자의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향유에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어 의식에 대한 연구가 언어 인식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어의 얼과 같은 정신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어 의식의 연구 범주에서 성찰해 볼 만하다.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의 개념은 '국어'와 '의식'의 개념적 본질에서부터 파악해 나가 야 함을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개념은 중층적이다. 김창원 외 (2015, 82)에서 국어를 '사고, 소통, 문화'의 세 차원으로 바라보고 국어교육은 학습자의 고등 사고력을 증진하고, 국어를 매개로 한 소통을 잘 하도록 만들며, 국어 문화를계승하고 창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2015 교육과정의 근간이 된 국어를바라보는 관점은 최근 개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졌는데, 실상 사고와 소

통, 그리고 문화로 국어를 바라보는 일은 국어교육 울타리에서는 당연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곧 국어교육에서 '국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질료'이고, 학습자가 국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도구이며, 한국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담아 독특한 한국어의 '문화'를 배태하는 대상인 것이다.

국어 의식의 '국어' 또한 국어교육에서 '국어'를 바라보는 이 세 차원의 개념과 다르지 않고, 달라서는 안 된다. 곧 국어 의식은 국어 자체에 대한 의식, 국어 사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식, 국어 문화를 보존하고 창달하는 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어에 대한 의식은 국어 자체를 민족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 국어 사용 과정은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사용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 국어 문화는 국어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아 보존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이들 세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바로 국어 의식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표 1〉과 같은 국어 의식의 관련 개념은 이들세 차원 가운데 하나로 수렴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의식은 '인식(awareness)'이 아니라 '의식(consciousness)'의 차 원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국어 사용의 과정에 서 발현되는, 국어를 민족 문화와 얼의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학습자의 정신적 태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arle(2002, 39)에서는 '의식(consciousness)'을 '언 어(language)'와의 관계성에서 규명하고 있다. 즉 의식(consciousness)은 세 가지 측 면인 '질적 과정(qualitativeness), 주체성(subjectivity), 공동체(unity)'를 주요 개념 요소로 지니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Searle(2002)는 이들 세 측면에 대해 생물학적 차원의 인간 의식을 벗어나 인간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하나인 화행(speech act)의 현상에 대한 화용론적근거로 설명한다. 곧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가치를 질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행위하며, 우리의 언어 사용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의 고차원적인 정신의 질적인 발현 과정이며, 언어 사용자가 언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기반이자, 언어 사용자가 언어적 공동체를 이룰 때 드러나는 가치나태도는 상호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식의 세 측면은 말의 힘을 나타내는 화행의 세 특징과 연계되듯이, 국어 의식의 범주와 대응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어 의식은 언어에 대한 인식, 비판적 인식, 주체적이고 성찰적 언어 사용, 그리고 국어의 가치와 얼을 인식하는 차원을 범주적으로 지닌 개념이어야 마땅하다. 구체적으로 국어 의식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

개념	범주	개념적 요소의 예
국어 의식은 국어에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	<ul><li>국어에 대한 호기심</li><li>국어에 대한 탐구와 앎</li></ul>
대한 탐구,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국어 문화에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	<ul><li>국어 사용 모습의 이해와 성찰</li><li>국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인식과 삶</li></ul>
대한 가치의 태도이다.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	<ul><li>국어가 지닌 민족 의식과 얼</li><li>문화 자원으로서 국어의 창달</li></ul>

위 〈표 2〉와 같이, 국어 의식은 국어, 국어 사용, 국어 문화의 세 차원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국어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서,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를 범주로 지닌다.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는 학습자가 국어에 호기심을 갖고 국어를 탐구하여 앎을 추구하려는 태도이다. 문법 영역의 중심 내용인 탐구를 수행할 때 수반되는 정의적 영역에 해당한다. 다양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려는 호기심, 국어 현상을 탐구하면서 갖는 문제의식, 그러한 문제 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등 국어 현상을 탐구할 때 수반되는 의식적 노력을 의미한다.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는 학습자가 국어 사용을 이해하고 성찰하는데, 이는 타인과 자신의 국어 사용 모습을 포괄한다. 자신의 국어 사용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은 메타 인식과 관련이 깊다. 또한 국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인식하고 국어가 삶을 반영함을 깨닫는 것도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어의식과 관련하여 중심적으로 논의되어 온 언어 인식 및 비판적 언어 인식 논의와 긴밀히 관련된다.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는 국어가 지닌 민족 의식을 파악하고 국어가 얼의 소산임을 깨닫는 것이다. 국어사에 관한 교육 내용은 해당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당대 언중의 국어생활 모습을 보고 느끼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에 국어를 단위 지식이나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기능적 도구로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 그 자체이자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Ⅲ.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지금까지 정립한 국어 의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삼되, 관련 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해석은 이전 2015 교육과정 및 2011 교육과정을 참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교육과정 내용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1. 내용 체계: 명시된 국어 의식, 편중된 내용 제시

국어 의식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법 영역의 정의적 교육 내용에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로 언어 인식과 관련하여 개념화되어 왔다. 이에 202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 의식에 관한 내용 요소가 제시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먼저 2022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에 대한 내용 체계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때 국어 의식이 문법 영역의 정의적 지식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22 교육과정의 가치·태도 범주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sup>6)</sup> 다만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2022 교육과정의 전체 영역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마련한 국어 의식의 개념에 따라 추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을 확충해 나갈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표 3〉2022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국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언 어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국어 의식을 형성한다.			
		Ц	내용 요소	
범주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가치 · 태도	・한글에 대한 호기심	·국어의 소중함 인식	・국어생활에 대한 민감성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다양한     집단 · 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위 〈표 3〉은 2022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서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 가운데 정의적지식과 관련된 범주인 가치·태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202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범주'와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범주'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를 지니며, '내용 요소'는 학년군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문법 영역의 경우, '지식·이해' 범주에 '언어의 본질과 맥락', '언어 단위',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이 제시되었고, '과정·기능' 범주에 '국어의 분석과 활용', '국어 실천의 생활과 비판'이 제시되었으며, '가치·태도' 범주는 위 〈표 2〉과 같은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2, 10). 아울러 이들 범주는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성취기준을 구성할 때 범주별 내용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된 다.

위 〈표 3〉을 보면 우선적으로 '핵심 아이디어'에서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가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문법 영역의 태도에 관한 명제라고도 볼수 있는데, 문법 영역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삼아, 태도와 관련하여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국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언어적 정체성'가, '국어 의식' 등이 문법 영역의

<sup>7)</sup> 정체성(identity)은 언어 사용과 가까운 거리에서 정의되어 왔다. Giddens(1991, 54)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행동에서 발견할 수 없고, 특별한 이야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발견해야 한다. 곧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자기 서사의 성찰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Giddens 1991, 224). Eisenstein(2011, 153)은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에 의해 변화하는데,

정의적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더욱이 문법 영역에서 정의적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가 국어 의식이라는 점 또한 의미가 크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견 지난 2015 교육과정에서 '국어 사랑'과 '국어 의식'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나열된 '국어에 대한 태도' 관련 핵심 개념이 '언어적 정체성'과 '국어 의식'으로 대치된 인상도 있지만, 언어적 정체성이 국어 사랑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어 의식'이 국어에 대한 태도를 총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후 2022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국어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국어 의식을 학습자가 문법 영역의 정의적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하겠다.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치·태도' 범주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들여다보면, 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에 대한 호기심', '국어의 소중함 인식', '국어 생활에 대한 민감성',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등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내용 요소는 앞서 정립한 국어 의식의 개념적 범주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다.

-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 한글에 대한 호기심, 국어 생활에 대한 민감성\*
-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 국어의 소중함 인식\*

위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정립한 국어 의식의 개념적 범주 세 차원에 2022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에 관한 내용 요소가 모두 대응된다. 일견 국어 의식의 범주에 온전히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는 2022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은, 실상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국어 의식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언어 인식'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2022 교육과정에서 언어적 정체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며, 학습자가 국어 의식을 갖추고 있는 인격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후속 연구로 기약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 의식이 언어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연구되어 온 경향에 벗어나지 못하였겠지만, 상당한 내용 요소가 '인식'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자아')의 언어 사용과 집단('타자')의 언어 사용 모습을 인식하고 그 관계도 인식하며 더 나아가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를 인식하는 내용은 모두 언어 인식에서 강조되어 온 바이다. 그럼에도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비판적 언어 인식 (CLA)의 내용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식 관련 내용에 대한 실천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언어 인식에 관한 내용이 실재화된 데 반해 상대적으로 민족 의식이나 국어의 얼에 관한 가치·태도의 국어 의식에 대한 교육 내용은 부족하다. 그것은 국어의 문화 관련 내용이 '과정·기능' 범주에 집중되어, 이른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교육으로만 수렴되어 있기 때문이다.8)

다음으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에서 '국어 생활에 대한 민감성', '국어의 소중함 인식' 등의 내용은 그 실체가 다소 불분명하다. '민감성'은 생활 속 국어 현상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국어 원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국어의 소중함 인식'은 축자적 의미로만 보면 다분히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 범주로서 '국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민족 의식, 즉 얼에 대한 교육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인식'이라는 수행 용어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민감성', '인식' 등의 주요한 교육과정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료화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어 의식에 대한 범주적 혼란이 존재하고 지나치게 '인식' 중심으로만 국어 의식 교육이 내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 2. 성취기준: 선언적 국어 의식 내용, 부족한 가치적 태도 내용

이번에는 202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자. 내용 체계의 경우 영역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성취기준은 이 문법 영역을 포함하되 모든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문법이 국어 활동의 기반이듯이,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이 다른 국어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어 의식의 범주에 따른 개념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성취기준과 암묵적으로

<sup>8)</sup> 이와 관련하여 국어사의 교육 내용은 탐구를 통한 지식의 교육이기도 하지만, 당대 언어의 모습을 통해 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문화 유산으로서 국어를 창달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후자의 교육에 대한 실체화가 국어 의식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용된 성취기준을 나누어서 다음 〈표 4〉로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과 그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9)

〈표 4〉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영역	성취기준	
명 시 적		[2국04-03] 문장과 문장 부호를 알맞게 쓰고 한글에 호기심을 가진다.	
	即	[4국04-05] 언어가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6국04-02] 표준어와 방언의 기능을 파악하고 언어 공동체와 국어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6국04-06] 글과 담화에 쓰인 단어 및 문장, 띄어쓰기를 민감하게 살펴 바르게 고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4-07]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9국04-08]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국어 실천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자아 및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10공국1-04-01]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생활을 한다.	
		[10공국2-04-01] 과거 및 현재의 국어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듣·말	[9국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암 묵 적	읽기	[9국02-01] 읽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며 사회적 독서에 참여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쓰기	[9국03-09]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인 필자로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윤리적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sup>9)</sup> 여기에서는 2022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공통 교육과정 국어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국어 1, 2)'을 대상으로 관련 성취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것은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확장되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요소는 공통 과목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통 과목'에 대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을 확장적으로 살필 때 부분적으로 선택 과목의 관련 내용을 활용하기로 한다.

위 (표 4)에 제시된 2022 교육과정의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 분석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그것은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체계가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된 양상에 대한 타당성 점검', '공통 교육과정을 계승한 공통국어 1, 2 과목에서의 국어 의식 실현 양상에 대한 점검',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내포된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국어 의식 관련 내용 요소의 적용 가능성 점검' 등이다.

첫째, 국어 의식이 명시된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가치·태도 범주는 주로 지식·이해 범주와 결합된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위 〈표 4〉의 [2국04-03], [4국04-05], [6국04-02], [6국04-06], [9국04-07], [9국04-08] 등이 앞선 〈표 3〉에서 살핀 내용 체계가 실현된 성취기준인데, 내용 요소 간의 결합 양상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글에 대한 호기심 문장과 문장 부호(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 국어의 소중함 인식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수단(언어의 본질과 맥락)
- 국어 생활의 민감성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표기와 사용(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지역에 따른 언어와 표준어(언어의 본질과 맥락)
-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언어(언어의 본질과 맥락)
-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국어 문제 발견하고 실천 양상 비판하기(국어 실천의 성찰과 비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어 의식과 관련된 문법의 가치·태도에 대한 성취기준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지식·이해' 범주와 결합되어 있다. 위의 마지막 항목만이 '국어 실천의 성찰과 비판'에 해당하는 문법의 '과정·기능' 범주와 결합되었을 뿐이다. 물론 문법이 국어에 대한 지식을 다루므로 명제적 지식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언어의 본질과 맥락'에 해당하는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는 과연 국어 의식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실제 문법의 교수-학습에서 작동할지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가령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수단'이라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을 배우면서 '국어가 소중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당위적, 선언적으로 국어 의식을 언급하는 차원에 그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10

<sup>10) &#</sup>x27;국어의 소중함 인식'은, 이 연구에서 정립한 국어 의식의 범주 가운데 '국어에 대한 문화적 태도'에 해당되지 않고, 2022 교육과정에서처럼 언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국어 의식 가운데 국어에 대한 문화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은 2022 교육과정의 공통

위의 마지막 항목인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은 국어 문제 발견과 실천 양상 비판이라는 수행 과정에서 작동될 가능성을 지닌다. 사실 이러한 결합은 언어 인식과 관련된 국어에 대한 인식적 태도의 국어 의식 교육 내용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간 교육과정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비판적 언어 인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둘째, 공통 교육과정을 계승한 공통 과목인 '공통국어 1, 2'에서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은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10공국1-04-01]',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10공국2-04-1]', '국어생활 성찰[10공국2-04-02]'와 같은 내용 요소를 지닌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개념화한 국어 의식의 범주에 비추어 볼 때, '국어에 대한 인식적 태도'와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국어생활성찰'은 인식적 태도에,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는 가치적 태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10공국1-04-01]'은, 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9국04-08]에 해당하는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이 계열적으로 확장된 성취기준이다.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변화된 언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남북한,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언어 실천 양상을 실천하는 교육 내용이 구안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국어생활 성찰[10공국2-04-02]'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의 국어 생활에서 한글 맞춤법 등 정서법에 어긋난 국어 사용을 스스로 성찰하게 한다는 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모두 국어 의식의 범주 중 언어 인식과 관련된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에 대한 교육으로 실현될 것이라 본다.

'국어 문화 발전에 참여[10공국2-04-1]'의 경우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 위〈표 4〉를 보면 '국어 변화'가 중심 내용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어사에 관한 교육 내용이 중심을 이루면서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에서 국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 자원으로서 국어를 창달하는 태도를 갖추는 데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의 중점이 놓인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국어 의식의 개념적 범주에서 현재 현저하게 부족한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국어사 교육에 대한 지식·이해 관련 내용이 강조될 경우,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국어사와 더불어 국어생활사의 교육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11〉국어생활사에서 선인의 민족 의식과 지혜를 국어로써 이해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곧 국어사를 익히는 지식·이해 차원에서만 강조되어 있어, 국어 문화에 대한 의식 차원의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

<sup>11)</sup> 김수정(2015, 35)에서는 장윤희(2009, 303)을 바탕으로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는 '국어가

깨달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제시된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주요 내용 요소를 추출해 보면, 읽기 영역의 [9국02-01]은 '사회적 독서 문화'를, 쓰기 영역의 [9국03-09]는 '윤리적 소통 문화'를, 매체 영역의 [10공국2-06-02]는 '매체 변화에 따른 소통 문화'이다. 한편 [9국01-10]의 경우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내용이 국어 의식과 암묵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 인식에 관한 국어 의식의 교육과 연관된다.

이들 언어문화에 관한 성취기준들은 공통적으로 '윤리성(ethics)'을 내용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국어를 도구로 삼아 생성된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텍스트의 질료인 국어가 지닌 가치를 중시하고 국어를 문화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쓰기 윤리를 지켜서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가 생산하는 글이 언어문화적 가치를 풍부하게 지닌 생산물이라는 사실과 상통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본관(2018, 51)은 국어교육의 윤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참여자 간 윤리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2)

이처럼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내포된 성취기준은 '윤리성'과 관련하여 해당 국어활동의 '문화'가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국어 의식 특히 국어 문화의가치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사회적 독서 문화와 윤리적 소통 문화 그리고 매체 환경에서의 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국어 의식과 이들 언어문화 (language-culture)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교육과정적 논의도, 학문적 논의도 부족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해석이 다소 비약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법이 국어 활동의 기반임을 직시하고, 국어 의식이 문법 영역의 학습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부려 쓰는 모든 학습자가 갖추는 기본 정신 상태라고 볼 때, 국어 의식은 모든 국어 활동에서 근간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지향점은 국어를 통한 문화 형성과 창달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어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은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범주로서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적 태도는 국어생활사 교육과 연계하여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생활사 및 국어 문화의 측면을 강조하지 못한 것은 국어 의식이 선언적이고 당위적으로 실행되는 데 그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sup>12)</sup> 쓰기 교육 영역의 경우 글쓴이의 윤리 교육, 문학 교육 영역의 경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인물을 통한 윤리 교육, 듣기 말하기의 경우 대화 참여자, 특히 듣는 이에 대한 배려로서의 윤리 교육, 문법 영역의 경우 차별적 언어 사용을 억제하는 윤리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이 주어져 있었다(구본관 2018, 51).

위 〈표 4〉에서 볼 수 있는,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내포된 성취기준들은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교육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2022 교육과정에서도 부족한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와 관련된 국어 의식 교육 내용을 국어 활동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 나가야할 것이다.

# Ⅳ. 연구의 요약과 남은 과제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을 개념화하고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국어 의식의 개념이 언어 인식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중층성을 상기하고 '의식'의 개념적 근원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탐구,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202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 체계에서는 국어 의식이 핵심 아이디어에서 명시되었으나, 언어 인식 중심으로 내용 요소가 편중되어 제시되어 있었다. 성취기준의 경우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한 명시적 내용과 국어 활동 영역에 내포된 암묵적 내용으로 나누어살펴보았다. 명시적 내용에서는,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이 문법의 지식·이해 범주와 연계되어 선언적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암묵적 내용에서는, 국어 의식에서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적 태도 범주가 국어 활동 영역의 윤리성과 언어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련의 논의는 문법 교육의 정의적 교육 내용이자 국어에 대한 태도의 핵심적 교육 내용으로서 국어 의식을 관련 이론과 교육과정 담론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최근 개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그 대안점을 모색하였다는 점도 국어 의식의 교육적 실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다만 국어 의식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어 의식 개념을 보다 촘촘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022 교육과정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실행에 대한 모습이 갖추어진 다음, 이 연구에서 추론적으로 해석했던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미비함이 발견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추후 시간을 두고 살펴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어 의식에 관한

아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남겨두며 부족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 의식에 대한 국어교육의 철학적 담론을 확충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방법적 논구에 집중한 나머지 국어교육의 존재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어 의식이 국어 문화와 그에 대한 가치적 범주를 지니고 있음에도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화되지 못한 이유 역시 그 철학적 논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논의에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정의적 교육 테제를 살피고, 국어교육에 인접한 학문 분야의 개념인 민족 의식, 시민 의식, 윤리성 등을 섭렵하여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깊이를 더해 가고자 한다.

둘째, 학습자의 국어 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반하고자 한다. 국어 의식은 다층적 개념인 만큼 현장의 국어 학습자가 국어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도 상이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가 국어 의식을 발현하는 양상 또한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국어 의식은 오직 문법 수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업 소통이나 일상 소통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국어 의식의 이해와 발현 양상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_\_\_\_

- 고춘화. 2013. 국어의식의 개념화와 교육적 해석, 국어교육학연구 47, 323-355.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 202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 구본관. 2018. 국어 교육과 윤리 과거, 현재, 미래 -. 국어교육 160, 37-71.
- 김규훈. 2019.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언어인식 (language awareness)'의 전이를 중심으로 -. 우리말글 83, 1-26.
- 김수정. 2015.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분석 연구. 문법 교육 25, 27-57.
- 김은성. 2005. 비판적 언어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323-355.
- . 2018.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의 현황과 새로운 전개. 한말연구 50, 5-32.
- 김진희. 2018. 문법 태도 교육 내용으로서 '국어 사랑과 국어 의식'에 대한 비판 적 소고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양상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50, 35-59.
- 김창원 외.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 국어과 교육과 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3.
- 신명선. 2008.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31, 357-392.
- 원진숙. 2013. 다문화 배경 국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의식. 국어교육학 연구 46, 111-138.
- 장윤희. 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 교육 10. 287-311.
- ALA. 1996. Language Awareness. Association for Language Awareness.
- Clark, R. & R. Ivanić. 1999. Raising critical awareness of language: a curriculum aim for the new millennium. *Introduction to critical language awareness* 8(2), 63-70.
- Eisenstein, C. 2011. Sacred economics: money, gift, and society in the age of transition. Evolver Editions.

- Fairclough, N., et al. 2014. Critical language awareness. Routledge.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NCLE. 1985. *Language Awareness*. National Congress on Languages in Education Assembly(4th, York, England, July 1984).
- Searle, J. R. 2002. Consciousness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투고일: 2023.01.04. ● 심사일: 2023.01.30. ● 게재확정일: 2023.02.13.

### | Abstract |

# Conceptual Systematization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and Critical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n Grammar Education

Kim Kyoohoo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and to consider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related educational contents critically.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concept of Korean language consciou sness is biased to studies of the language awareness was identified by piecing the existing studies about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together. To overcom e this bias phenomenon, this study recalls the multi-layered features of the "Kore an language", and investigates conceptual roots of the "Consciousness" in Korea n language education. On a basis of this works,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is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attitude of inquiry, attitude of awareness, attitude of valu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at each category are established. And then,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Korean consciousness related educational contents in 2022 curriculum. As a result,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is state d clearly in the key idea, the contents elements are leaned towards the language awareness in the contents system of 2022 curriculum. In achievement standards of 2022 curriculum, it is feared that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education could be just declaring education becaus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which are related to the value attitude in grammar domain, are mostly connected to knowledge understanding category of those domain. Nevertheless, a possibility is found that the valuable attitud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could be constructed by the contents related to language-culture of Korean language use.

Key words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Language awareness, Attitude about Korean language, 2022 Curriculum, Value attitude in grammar domain, Language culture of Korean language use.